

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

작성일 : 2010. 3. 2. (화) 02시 28분 경

작성자 : 심주영 전도사 (서울희망교회 대학부)

(2010년 3월 2일 새벽 2시경, 예수님과 마음의 대화중에
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섭리사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 것
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. 이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)

예수님 말씀

내가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겠다.

사랑하는 자들아.

나는 너희의 첫사랑 주 예수이다.

나의 사랑들아.

눈이 시리게 바라보며 눈물 흘려도

내 눈에 넣어두고만 싶은 내 사랑이들.

내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느냐?

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였다.

너희의 첫사랑은 육적으로 처음 눈뜨는 그 사랑이 아니다.

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를 믿고 사랑했던 그 때가

나와 첫사랑을 맺었을 때니라.

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느냐?

첫사랑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나하면

바로 나를 처음 만나 가장 쫓았던 그 때.

말씀을 듣고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며 감동 받았던 그 때.

나를 정말 좋아하며 목숨 바쳐 이 길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때.

그 때의 삶을 지금도 사는 자가

바로 첫사랑을 유지하는 자니라.

‘나는 이러한 때가 없었는데...’ 생각하느냐?

정말 나와 첫사랑을 맺어야 하는 자도 있고,
맺었는데 너희가 잊어 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.

이러니 내 마음 어떠하겠느냐?

서로 사랑만 하고 살아도 아까운 이 때,

특히나 더욱 시간이 촉박한 이때에

내가 보기에 부족한 너희의 사랑마저

식어가는 모습을 보는 나는 어찌할지 생각해 보았느냐?

이리 애타는 마음의 이유는

이 사랑, 회복되고 지속 되는 뜨거운 사랑 없이는
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.

생각해 보거라.

머리가 좋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

최고 일류대학에 갔다 하자.

그 곳에서 그 지식의 한계로 아마 버티기 힘들 것이다.

그와 같이 천국의 세계도

여기서, 이 지구세상에서

나와 통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

천국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.

사랑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

그 한계에 부딪혀 버릴 수 없기에

수준대로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.

그 수준에 맞는 삶이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삶이지 않느냐?

그처럼 천하만국의 통솔자인 성삼위가

어련히 알고서 영계의 세계를 마련했겠느냐.

사랑이다.

사랑이 핵심이다.

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세워

사랑의 역사를 펴며 사랑의 말씀 전하며

사랑으로 통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며

사랑의 결정체,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.

내 사랑들아.

이러한 사랑의 법칙과 영계의 실상을 알고

제발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.

너무 많이 식어 있도다.

세상이 아니라 섭리사 너희 내 사랑들 말이다.

사랑. 사랑.

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니 이제 무더졌느냐.

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니 이 정도만 해도

내 사랑으로 다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게냐.

그 마음 모두 내 사랑 식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

너희는 정신, 영혼, 사랑의 감각 모두 깨워

내게 나아올지어다.

내, 깨어난 너희 모두를 사랑으로 받겠으니

부지런히 행하여라.

사랑한다. 사랑해.

-나 주 예수가-